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Code and Self-efficacy*

Jooyoung Son**

Abstract: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code (leadership core competencies) and self-efficacy. The study conducted a Google survey on students at K university in Seoul between May 28 and June 22, 2023. The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softwares SPSS 23.0 and AMOS 22.0. The study yielded two key findings. First, university students' leadership code exhibi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ir self-efficacy. Second, gender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code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study, the difference in gender needs not to be a major considering factor when developing effective leadership education program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rograms shall be emphasized over gender-specific programs in leadership development.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leadership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Leadership Code, Gender, Self-efficacy, University Student, Leadership Education Program

□ 접수일: 2024년 4월 16일, 수정일: 2024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8일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Professor, Kwangwoon Univ., Email: jys31@kw.ac.kr)

I. 서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낮은 학업 성취도, 그리고 대인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 불안정성 등 대학생활의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김연경, 2022; 김효정 외, 2020; 이종만, 2020; 정희정 외, 2020).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었던 비대면 수업은 대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업 성취도를 전반적으로 저하시켰지만(조성일, 2020; 정희정 외, 2020), 같은 기간에 사교육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한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욱 감소하여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양극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김경근 외, 2022).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졸업 후 진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지만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김경주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인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에 관심을 갖고 두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손주영, 2022).

손주영·김주호(2017)의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의 고성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핵심역량인 리더십 코드는 한국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자기 효능감의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장희·김주호, 2012). 또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신념(Bandure, 1977)'을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성취활동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김아영·차정은, 2003; 김애경 외, 2013; 이경희·김지연, 2014; 이경아·손희원, 2021; 이숙정, 2011; 손주영, 2022; 손주영·김주호, 2017).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손주영, 2022). 본 연구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요 아젠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 성별에 근거한 맞춤형 리더십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별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조직 내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 역량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임수원 외, 2020)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황미영,

2009). 특히 조직 내 여성 관리자의 경우와 달리 대학 신입생의 경우 리더십교육의 효과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박은민·박미랑, 2015) 비용 효율성 차원에서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리더십 코드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프로그램의 개발은 효율적인가?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3년 5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K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3명의 응답 결과를 SPSS 23.0과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과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델 적합도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표 1>에 따르면 남학생 115명(51.6%)과 여학생 108명(48.4%)이 응답하였으며 1학년 70명(31.4%), 2학년 64명(28.7%), 3학년 40명(17.9%), 그리고 4학년 49명(22.0%)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특성		빈도(명)	비율(%)	누적빈도(명)
성별	남학생	115	51.6	223
	여학생	108	48.4	
학년	1학년	70	31.4	223
	2학년	64	28.7	
	3학년	40	17.9	
	4학년	49	22.0	

2. 조사도구

리더십 코드는 손주영(2013)이 S그룹 고성과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손주영·김주호(201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30문항 설문지를 부분 수정한 뒤 Likert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 구조에 맞지 않는 1개의 항목들을 제거한 총 29개의 문항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리더십 코드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865로 나타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명목변수인 성별을 0과 1로 구성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은 송윤아(2010)가 개발한 자기 효능감 척도 10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905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에 기반하여 자기 효능감의 신뢰도는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해석하였다(송지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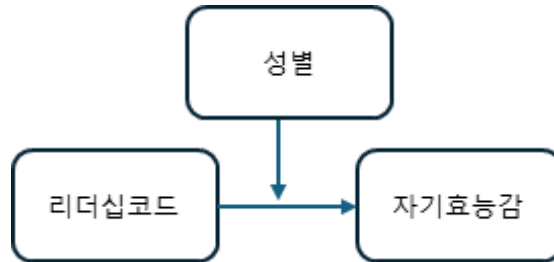
3. 연구가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그림 1)을 설정하였다. 첫째,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에 관심을 갖고 두 요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비용 효율성 차원에서 성별 맞춤형 리더십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성별이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다음과 같다.

〈가설 2〉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성별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정규성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분석결과(표 2)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Kline, 2005).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변수	평균	SD	왜도(기준=<3)	첨도(기준=<8)
리더십코드	3.67	.574	.218	.419
자기효능감	3.81	.640	.165	-.609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리더십 코드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손주영·김주호, 2017)와 같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고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 한 개를 제거하였다. 총 29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은 모

집단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151$ 로 귀무가설 채택). 종속변수인 자기 효능감은 한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요인분석결과 KMO가 .9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리더십코드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CMIN/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분석결과	1.893	.992	.959	.991	.996	.007	.063
적합도 기준	$\chi^2/df < 3$	$> .9$	$> .9$	$> .9$	$> .9$	$< .05$	$< .10$
적합여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 상관관계분석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계수는 .773으로 다중공선성의 판단기준인 .9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해석하였다(송지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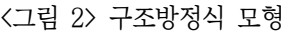
〈표 4〉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1	2
1. 리더십코드	3.67	.574	1.00	.773**
2. 자기효능감	3.81	.640	.773**	1.00

** $p < .01$

4. 〈가설 1〉의 검증

〈가설 1〉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가설 1의 검증

구분	구분	Estimate	S. E.	C. R. (t)	p	채택여부
가설 1	리더십코드 → 자기효능감	1.070	.094	11.427	.001	채택

구분	구분	Estimate	S. E.	C. R. (t)	p	채택여부
가설 1	리더십코드 → 자기효능감	1.070	.094	11.427	.001	채택

〈표 6〉 측정모델의 적합도 분석

구분	CMIN/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분석결과	2.735	.887	.844	.889	.926	.032	.088
적합도 기준	$\chi^2/df < 3$	> .9	> .9	> .9	> .9	< .05	< .10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구분	CMIN/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분석결과	2.735	.887	.844	.889	.926	.032	.088
적합도 기준	$\chi^2/df < 3$	> .9	> .9	> .9	> .9	< .05	< .10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5. <가설 2>의 검증

<가설 2> ‘대학생의 리더십코드와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성별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단계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값을 계산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분석 결과(표 7)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투입한 3단계에서 R제곱값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R제곱 변화량=0.000, $p=.830$)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2>의 기각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성별 맞춤형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	R	R ²	수정 R ²	추정 값의 표준 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²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773a	.598	.596	.407	.598	328.999	1	221	.000	2.083
2단계	.775b	.601	.597	.406	.003	1.608	1	220	.206	
3단계	.775c	.601	.596	.407	.000	.046	1	219	.830	

a. 리더십코드

b. 리더십코드, 성별

c. 리더십코드, 성별, 상호작용항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적응력 간의 긴밀한 영향관계를 전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하는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성별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 코드는 자기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는 자기 효능감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손주영, 2022)를 재검증함으로써 리더십 코드의 효과성을 확장하였다는 것에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둘째,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리더십 코드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성취활동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아영·차정은, 2003; 김애경 외, 2013; 이경희·김지연, 2014; 이경아·손희원, 2021)를 전제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비용 효율성 차원에서 여성 또는 남성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통합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우선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리더십 코드의 효과성을 확장하고,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여성 또는 남성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 있는 학술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특정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파악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보호’ 등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대신 양적 연구에 의존함으로써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연구는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한 혼합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근·심재휘·임혜정(2022),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실제 및 영향요인, *교육과정평가연구*, 25(4): 63-88.
- 김경주·김기홍·박경선(2012), 도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 결정수준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1-25.
- 김아영·차정은(2003), 교사 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7(2): 25-43.
- 김연정(2022), 코로나19 시대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121-134.
- 김효정·오새내·조명실(2020),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 수업 시기의 대학 신입생의 자기 효능감과 우울 및 분노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교양 교육 연구*, 14(6): 299-308.
- 박은민·박미랑(2015), 대학 신입생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6): 565-574.
- 손주영(2013),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리더십브랜드 가치지수의 개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3(2): 75-99.
- 손주영·김주호(2017), 리더십브랜드가 대학생의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코드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7(2): 149-158.
- 손주영(2022), 대학생의 리더십코드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3): 2609-2622.
- 송윤아(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15),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이경아·손희원(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5): 239-254.
- 이경희·김지연(2014),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Andragogy Today*, 17(4): 33-57.
- 이숙정(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5(2): 235-253.

- 이장희·김주후(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련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1(2): 227-246.
- 이종만(2020), 코로나19 원격 교육에서 외로움과 유튜브 과다 사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342-351.
- 임수원·박혜형·박윤희(2020), 기업체 여성 관리자를 위한 리더십 역량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2(1): 67-100.
- 정애경·김지심·김정화(2013),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생활적응과 학업 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6(6): 11-18.
- 정희정·김애림·주하나(2020), 코로나 위기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유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359-1381.
- 조성일(2020),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업 성취도 비교, *상업교육연구*, 34(6): 23-39.
- 황미영(2009),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부산교육학연구*, 22(1): 125-15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국문초록】**리더십 코드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손 주 영**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리더십 코드(리더십 핵심역량)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23년 5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 소재 K대학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SPSS 23.0과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는 자기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생의 리더십 코드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다. 즉, 본 연구는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통합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리더십 코드, 성별, 자기 효능감, 대학생, 리더십 교육프로그램